

'문화사랑방' 동네책방 살리기 의회가 나섰다

광산구의회·서구의회 조례 제정 공공기관 도서 지역서점서 구매 입찰만 따내는 '유령서점' 막기 동구의회도 지원 조례 발의 준비

동네 서점은 책을 매개로 한 문화사랑방이다.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 영상시대 이전에는 많은 이들이 동네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하고 읽었다. 당시의 서점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문화의 장이었다.

최근 저마다 개성적인 콘텐츠를 내세운 동네 서점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면서 동네 책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서점에서는 토론회, 콘서트, 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당장의 매출보다는 지역민의 문화 감성을 해소하고, 독서문화를 진흥한다는 점에서 지역 서점과 문화업계는 고무적인 일로 평가한다.

이 같은 동네서점의 변신과 맞물려 최근 광주의 지자체가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연초에 터진 대형 서점도매상 승인서적 부도도 영세한 출판업체와 동네서점의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의 동네 책방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는 평가다.

광산구의회는 날로 줄어드는 동네서점을 활성화하고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김동권의원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한 '광산구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대형서점과 인터넷서점으로 인해 지역 서점이 많이 위축된 상태다. 조례 제정으로 지역 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나서서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판매하는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서점위원회를 설치해 서점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서점 운영을 포함한



최근 개성적인 콘텐츠를 내세운 동네 서점들의 등장과 맞물려 광주의 지자체에서 동네 책방을 살리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동구에 문을 연 '책과 생활'.

창업, 환경개선 등의 지원도 담고 있어 향후 동네 서점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역서점위원회가 설치되면 구에서 구매하는 도서는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할당제를 정할 방침"이라며 "지역 서점은 도시의 유통을 넘어 지역문화와 정보가 태동하고 집결되는 복합공간"이라고 말했다.

서구의회도 지난달 광주지역 지자체 최초로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지난날 25일 본회의를 통과해 '유령서점'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몇 년 전 지역 서점을 비롯한 소규모 책방을 보호하지는 취지로 도서정가제를 도입했지만 실질적으로 동네 서점에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다"고 했다. 그 원인으로 김 의원은 '유령서점'의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서점을 운영하지 않

으면서 학교나 관공서 등의 도서구매 입찰을 따내는 '유령서점'의 횡포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구 관내에만 해도 정상적인 서점이 87곳인데 반해 '유령서점'은 691곳에 달할 만큼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장에 '서점'을 추가해 낙찰을 받는 '유령서점'의 횡포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에는 지역서점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에 명시된 지역서점은 "광주 서구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서점"으로 했다. 또한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계획 수립과 지역서점위원회 설치·운영·장입 컨설팅을 돕는 정책 수립 등도 담고 있다.

광주 동구에는 문화운동차원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작은 동네 책방이 많다. '책방심가네박씨', '책과 생활', '소년의 서', '흰 종이 검은종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들 책방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지역문화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과 호흡한다.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은 최근 의회 사무과에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출했다. 전 의원은 "동네 책방은 돈이 안 되는 줄 알면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문화동구는 문화에 대한 자원은 비교적 풍부하나 여건이 미흡하다"며 "작은 책방을 운영하는 분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르면 하반기에는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현재책방 거리도 활성화 돼 동구가 실질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와 북구는 현재까지는 지역서점 활성화와 관련한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정영숙 시인 첫 시집 '아찔한 길' 펴내

나주 출신 정영숙(58) 시인이 등단 이후 6년 만에 첫 시집 '아찔한 길'(작가)을 펴냈다. 작품집에는 모두 4부에 걸쳐 72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특히 가족사적 슬픔을 담담히 시로 승화시킨 작품들이 수록돼 있어 전전환 울림을 준다.

도록 비취주는 신호등이다/ 마취가 풀려 고통스러운 밤도 한데/ 회복실에 누워있는 남자의 얼굴에 라이트 하나 켜져/ 그 남자의 생을 조심스럽게 비추고 있다." '암 병동에서'는 가족 중 누군가가 수술을 받은 장면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화자는 병상의 환자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에 대해 깊이 사유하며 삶과 존



재의 의미를 짚어 본다. 시인인 이승철 한국문학평화포럼 사무총장은 "정영숙의 첫 시집은 시인 자신이 체험한 삶의 흔적과 영혼의 귀적에 대한 진솔한 자기고백을 담았다"며 "자신이 맞닥뜨린 공간 속에서 존재의 상처를 직시하면서 생의 진실을 그만의 독특한 시각

과 눈썹미로 재해석하는 등 섬세한 감각과 통찰의 시선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정 시인은 2011년 계간 '시와 사람' 여름호에 '오십견', '아찔한 길', '암병동' 등 5편으로 신인상에 당선되며 등단했다. 현재 목포작가회의 회원, 여성문인회 '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아찔한 길'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회가 내달 1일(오후 4시) 목포문화관에서 열린다. 문의 010-4609-2806.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엄광용 비올라 독주회

내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피아노 연주 김가람

바이올린 보다 낮은 음색의 비올라 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매력적인 악기다.

지난해 광주시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으로 입단한 비올리스트 엄광용 씨가 광주에서 첫번째 독주회를 갖는다. 30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연주 레퍼토리는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단조', 에네스쿠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콘체르토', 클라크의 '비올라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등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거쳐 만하임 국립음대를 수석 입학·졸업한 엄씨는 같은 대학 최고연주자 과정도 수석·입학 졸업했다. 독일 바덴바덴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 무대를 가졌으며 만하임 국립음대 교바야시 교수가 리더를 맡고 있는 '비올라 콰르텟' 단원으로 유럽과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화음챔버오케스트라, 앙상블 라 감브 단원으로도 활동중이다.

피아노 연주는 김가람씨가 맡았다. 티켓 가격 전석 2만원(학생 할인 50%). 문의 010-4301-192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어린이문화재 그림전'

8월20일까지 1층 중앙홀

국립광주박물관이 지난 5월 열린 '제30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수상작을 선보이는 '어린이문화재 그림전'을 8월20일까지 전시관 1층 중앙홀에서 연다.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는 어린이들이 박물관 전시실에 있는 문화재를 보고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행사다.

올해는 광주·전남에서 453명이 참가해 솜씨를 뽐냈다. 박물관 측은 심사위원단(위원장 김중일 전남대 명예교수)을 구성, 심사를 거쳐 수상작 136점을 선정했다.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금동관도 : 물고기모양 왕관을 쓴 여왕'을 그린 화순초등학교 1학년 이소연 학생이 수상했다. 그밖에 최우수상 6명, 우수상 15명, 가작 34명, 입선 80명



이소연 작 '금동관도 : 물고기모양 왕관을 쓴 여왕'

이 수상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문의 062-570-701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불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불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불링장 16래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